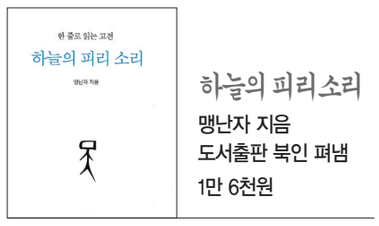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6/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2	요가수트라(아헹가요가시리즈8)아헹가 선생이해설한요가경	B.K.S.아헹가/현천	선요가
3	무비스님의 신심 명강의(개정판)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4	사랑하는 사람 못만나 괴롭네(고승열전14)만공스님	윤청광	우리출판사
5	반야심경 무슨말을하고있나:산스크리트어본과8종의한역본	관정	알아차림
6	마음닦는법	김재웅 지음	용화
7	운명을바꾸는법(정공법사요범사훈강설)	정공 법사/이기화	불광출판부
8	디가니까야(3)길게설하신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9	법구경(작은경전1)	석지현 옮김	민족사
10	마하시사야도의아리야와사법문(큰북여섯)성자의집경해설	마하시 사야도	불방일

책세상

"古典 읽으면 생각과 삶의 양식 달라진다"



하늘의 피리소리
맹난자 지음
도서출판 북인 펴냄
1만 6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여든의 老수필가인 저자, 철학수필 장르 지평 열어
문화일보서 2년간 연재한 '한줄로 읽은 고전' 묶어
저자, "고전은 오랜시간 축적된 문화의 한 결정체"
동서양과 철학가와 사상가 넘나들며 명언들 엄선해

한국 수필계의 원로 작가인 맹난자 수필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석간 문화일보에 연재한 〈한 줄로 읽는 고전〉 91편과 나머지 66편을 보태 한데 묶은 신간 〈하늘의 피리 소리〉를 출간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상만을 주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 즉흥적이면서 쉽고 빠르게 전달되는 것을 더 원한다. 지식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빨리, 간단하게 지식을 얻고자 하는 생각에 책장에 꽂힌 고전(古典)보다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을 띄운다. 빠른 시간에 자신이 찾는 지식과 정보를 쏙쏙 뽑아 금방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세상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쉽게 지식과 정보를 얻다보니 어렵고 두꺼운 고전의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기는 힘이 든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고전의 책장 넘기기를 소설책 넘기듯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고전의 지혜와 현대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기획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출판되고 있다. 무수히 쏟아지는 책들 모두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한 권에 담긴 모든 말들이 가슴속까지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 각 권마다 분명 짧지만 강한 핵심이 존재한다. 그 핵심을 명언이라 하는데 이는 작품 전체를 함축시킨 것으로 창작의 영감이 고스란히 결집된 지혜의 결정체이다.

저자는 중국을 비롯해 동서양의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발휘한 고전 중에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유익한 명언만을 엄선해 한줄로 읽는 즐거운 고전 책을 탄생시켰다. 맹난자 수필가는 머리말을 통해 "인류는 코로나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 펜데믹 시대를 '과학의 승리, 정치와 리더십의 대재앙' 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인간의 몰락을 일찍이 이와 같이 경고한 선인들의 지혜가 시급히 요청되는 때"이라며 "지금 기계에 의존하는 과학만능이 가져온 코로나의 재앙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초래한 결과"라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 아래의 글로 피력한다. " '한 시대의 병(病)은 사람의 양식 변화로 치료된다' 고 말한 이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다. 그는 사람의 '사유' 가 삶의 양식 변화를 일으킨다며 삶을 변화시켜야 진짜 철학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달라진다. "며 "이 책에서는 동서양 철학자, 그리고 경전과 고전문학 속에서 자신의 편견과 오류를 정정하고 바른 사유의 전환을 돕는 내 나름의 안구(眼句)를 뽑아보았다. 그러나 내 시야란 자신의 한계까지임을 밝힌다. 그동안 생의 기준이 되는 유용한 질문과 답으로써 우리의 몽매를 깨우친 삼현(三玄)(〈노자〉 〈장자〉 〈주역〉)의 서(書)를 특히 주목하며 나아가 인류의 스승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고전을 음미하고 읽어야 생각과 삶의 양식이 바뀌어 진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 1장 '도(道)' , 제2장 '주역' 과 제3장 '자연' 에서는 "대자연의 본체를 굳이 표현하자면 '도' 라 하나 표현된 '도' 나 이름은 이미 본체가 아니요. 형상도 이름도 없는 본체를 굳이 또 표현하자면 '무(無)' 라고 한다. 도에는 필경 어떤 명칭도 붙지 못하는데 도는 물을 수 없는 것이며 설사 묻더라고 응답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자와 장자, 주역 등에서 역설한 도(道)를 알아보았으며, 〈주역〉 〈도덕경〉 〈태극도설〉 〈천자문〉 기(氣)철학자 화담 서경덕의 〈서화담문집〉, 미국 우주론학자 로렌스 크라우스의 〈무(無)로부터의 우주〉, 영국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의 〈의복철학〉, 쇼펜하우어의 〈본질불멸론〉,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미국 사상가 에머슨의 〈자연론〉 등의 서문과 해당 책 내용의 핵심을 거론하며, 주역과 자연에 대해 설명했다.

제 4장 '죽음' 과 제5장 '문학' 에서는 로마제국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일기, 마크 트웨인의 죽음을 앞두고 쓴 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포르투갈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죽음의 중지〉 서문, 중국의 석학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무지개〉,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등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세와 마음에 대해 또 문학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 사상가와 문인의 생각을 담았다.

제 6장 '어떻게 살 것인가' 와 제7장 '생명/ 실존/ 자유' , 제8장 '학문과 수기(修己)' 에서는 덴마크 출신의 신학자 키르케고르, 장 자크 루소, 니체, 괴테, 솔제니친, 오스카 와일드, 노자와 장자, 당나라 시인 유자후, 고려 문장가 이규보, 조선 초기 학자 강희맹, 퇴계 이황, 토정 이지함, 다산 정약용, 법정 스님, 미국의 환경운동가 존 프란시스, 나치헌터로 알려진 시몬 비젠탈 등의 철학자와 작가들이 책에 남긴 글이나 편지, 또는 연설문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배움의 자세와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 학문을 익히고 올바른 쓰임새의 방법 등을 이야기했다.

제 9장 '마음' 과 제 10장 '불교' 편에서는 〈반야심경〉 〈화엄경〉 〈아함경〉 〈열반경〉 〈벽암록〉 〈육조단경〉 〈직지〉 등의 경전과 원효 스님의 오도송, 인도의 학승 나가르주나의 〈중론〉, 동산 양개 스님,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미국 작가 오헨리와 모파상, 일본의 작가 나츠메 소세키의 〈유리문 안에서〉 등에서 가져온 불교와 마음에 대한 글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제 10장 불교편 가운데 '모든 것은 변한다' 에서 저자는 붓다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해 나갔다. "내가 죽은 뒤에는 법과 계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이니 무엇이든 물어라.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열심히 정진하거라."라고.

저자는 책 속에서 말한다. "이것만큼 확실한 진리가 또 있을까? 그분 나이에 이르니 어느새 몸으로 법계가 체득된다. 그러면서 죽되 죽지않는 불생불별, 번역 속의 불역, 그 본질을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혜경 철학박사(연세대 철학연구소 연구원)는 추천사를 통해 "철학 수필이라 불릴 만한 글이 드문 한국 문학계에서 철학 수필의 지평을 제시한 작가가 바로 수필가 맹난자라고 정의하길 주저하지 않는다"고 극찬했다. 마지막으로 저자인 맹 작가도 "영묘한 생명력이 회복되고, 청정한 우리 본래 마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고맙겠다"며 "여든의 노필(老筆)로 귀한 말씀을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출간 소감을 피력했다. 〈하늘의 피리 소리〉의 책장을 다덮고 나면 맹난자 작가 특유의 철학 수필 진수를 흠뻑 맛볼 수 있을 것 같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제자인 자유가 말했다. "땅의 피리 소리는 여러 구멍서 나오는 소리이고, 사람의 피리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서 나는 소리군요. 그럼 부디 하늘의 피리 소리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스승인 자기가 답했다. "(수없는 것에 바람이 불어 나무 구멍 모양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도) 각기 스스로가 소리 내는 거야. 모두 제 스스로 초래한 소리라면 그렇게 사나운 소리를 나도록 한 것은 무엇인가?"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의 한 대목이다. 장자는 그들 대화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스승 남곽자기의 말을 더 들어보자. "말하자면 대지가 내쉬는 숨결을 바람이라고 하지. 그게 일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일단 일었다 하면 온갖 구멍이 다 요란하게 울린다. 너는 저 윙윙 울리는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들어봤겠지.

산림(山林) 높은 봉우리의 백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 구멍은 코 같고 입 같고 귀 같고 옥로 같고 술잔 같고 절구 같고 깊은 웅덩이 같고 얕은 웅덩이 같고 갖가지 모양을 하고 있지. 콸콸 거칠게 물 흐르는 소리, 씽씽 화살 나는 소리, 나직이 나무라는 듯한 소리, 흐흑 들이키는 소리, (…) 새가 울듯 가냘픈 소리 등 갖가지로 울리지. 앞의 바람이 휘휘 울리면 뒤의 바람이 윙윙 따른다. 산들바람에는 가볍게 응하고, 거센 바람에는 크게 응해. 태풍이 멎으면 모든 구멍이 고요해진다. 너는 나무가 바람 때문에 크게 흔들리기도 하고 가볍게 흔들리는 걸 보았겠지."

남곽자기는 대지가 토하는 숨결을 '바람' 이라 하며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만인데 일단 바람이 일면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바람에 불려 요란한 소리를 내지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바람이 없다면 어떨까?

적적요요(寂寂廖廖), 자연은 본디 희언자연(希言自然)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현상으로서의 자기 부정이 아닌가. 현상이 무너질 때 본질이 드러나는 법. 이는 본질(道)에의 계합이다.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